



왜 일해야 하는 걸까요?

2. 일의 시작은 어디에서 왔는가?

Opening Talk

오프닝 토크



30대 중반의 여성 직장인 P 씨는 종합일간지 신문사의 교열부에서 근무한다. 매일 쏟아지는 기사들에서 오타자를 수정하고 더 좋은 표현으로 바로잡는 일을 하고 있다. P 씨는 오늘 회사 조회 시간에 이달의 기자상을 받은 사회부 새내기 기자의 수상 소감을 들으면서 한참 후배에게 큰 부러움을 느꼈다. 취재기자를 해보고 싶어서 여러 차례 편집국장에게 건의했지만 번번히 거절당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이다.

특히 오늘은 기사도 눈에 들어오지 않고 남이 쓴 기사나 수정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이 한심하게 느껴졌다. 늘 이를 위해 기도해 왔지만 이제는 너무 지쳐 직장생활에 대한 의욕마저 없어진다.

반면 이달의 기자상을 받은 사회부 새내기 기자 S 양은 입사한 지 얼마 되지 않아도 자신이 쓴 기사가 계속 대박이 나면서 일하는 쾌감을 느끼고 있었다. 운이 좋은 것인지 사건이 적절한 때에 터져주었고, 의욕이 넘쳐서인지 취재 아이디어도 쏙쏙 솟아났다. S 양은 편집장이라는 거대한 목표를 향해 한 걸음 나아간 것 같아 자긍심이 생겼다. 오늘도 취재 현장으로 달려가는 발걸음도 가볍게 느껴졌다.

(Tip. 모든 질문은 한꺼번에 읽고, 각자 원하는 질문에만 답하게 해주세요.
질문은 토론을 이끌어 내기 위한 도구로 생각해주세요.
Biblical Point 나눔도 동일하게 진행해주세요.)

- 나의 직장 생활은 P 씨와 S 양 중 누구의 상황과 유사하다고 느껴지는가?
그 이유는 무엇인가?

- 당신이 상사라면 또는 동료라면 P 씨에게 어떤 조언을 해주겠는가?

- 당신이 상사라면 또는 동료라면 S 양에게는 어떤 조언을 해주겠는가?

Biblical Point

바이블 포인트



'일'의 정의부터 내리는 것이 중요하다. 일이란 단지 직업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우리의 일 거수일투족이 일의 영역에 속한다. 주부의 집안일도 일이고 학생의 학업도 일이다. 또한 밥을 먹는 것도, 커피를 마시는 것도, 인터넷 서핑을 하다가 댓글을 다는 것도, 친구와 카톡을 하는 것도 모두 다 일이다. 물론 각각의 일마다 가치는 다 다르겠지만 말이다. 이번 과에서는 원하든 원하지 않든 매일 하고 있는 이 일이 어디에서 시작된 것인지에 대해 질문을 던져보고자 한다.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는 일이 있었을까? 아니면 타락 후에 일이 생겼을까? 모든 것의 시작인 '창세기'로 가보자.

첫 번째 질문: 누구를 위한 창조인가?

창세기 1장을 보자. 인간이 창조되기도 전에 태초에 ‘일’을 시작하신 분은 하나님이다.

하나님께서서는 세상을 하나하나 조성해 나가실 때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신다. 이 말이 7번이나 나오므로 정말 중요한 말씀임에 틀림이 없다. 도대체 무엇이 그렇게 보시기에 좋았다는 것인가! 하나님께서 본인이 만드신 것을 보고 감탄하고 있다고 이해할 수도 있다. 예술가가 자신이 만든 작품을 음미하듯 말이다.

그런데 그렇게 보기에는 일관성이 없는 부분이 있다. 놀라운 것은 둘째 날을 보면 궁창을 만드시고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누시고는(창 1:6-8)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말씀을 하지 않으신다. 궁창, 즉 하늘이 얼마나 보기에 좋은가! 지금도 창 밖을 내다보라. 얼마나 아름다운가! 그런데 왜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말씀을 하지 않으신 것인가? 그렇다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표현 속에 스스로 만들어 놓으신 작품을 감상하는 그 이상의 의미가 있음을 시사한다. 어떤 의미가 담겨 있을까?

그 질문에 답하기 전에, 먼저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라는 표현은 누구를 위한 것인지를 생각해 보자. 시편의 저자는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다”(시 139:12)라고 고백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밤낮의 구분은 큰 의미가 없다. 오히려 이 구분은 식물, 짐승 그리고 무엇보다 인간에게 큰 의미가 있다. 우리가 밤과 낮의 사이클로 일생을 살아가기 때문이다. 인간은 며칠 밤을 세울 수는 있어도 계속 잠을 자지 않고 견딜 수는 없다. 에너지 드링크를 아무리 마셔도 버티지 못한다. 창세기 1장의 뚜렷한 밤낮의 구별은 하나님이 아닌 생명체, 특히 인간을 위한 것이다.

6일 동안 하나님께서는 빛, 하늘, 땅과 바다, 씨 맺는 채소와 열매 맺는 나무, 하늘을 나는 새들, 물고기, 육축과 짐승들을 만드신다. 이 모든 것들은 누구에게 유익한 것인가를 곰곰이 생각해 보라. 우리 인간에게 필요한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태계’의 환경, 풍부한 식량, 지하 자원, 해양 자원 등의 무궁 무진한 자원을 창조해 주셨다.





두 번째 질문: 둘째 날은 어떻게 된 것인가?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둘째 날에는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말씀을 하시지 않은 것인가? 그것은 아직 인간이 살 수 있는 땅이 조성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늘은 충분히 아름다웠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인간이 살 수 있는 공간이 만들어지지 않아 아직 ‘인간에게’ 좋을 것이 없었던 것이다.

태초부터 하나님은
‘인간을 염두에 두고,
인간에게 애정과 사랑을
갖고’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

오히려 땅을 만드시고 채소와 열매 맺는 나무를 만드신 셋째 날에는 인간이 살 수 있는 토지(부동산)와 식량을 보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를 연달아 두 번이나 말씀 하신다.

즉,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표현은 철저히 인간을 기준으로 두고 하신 말씀이다. 하나님 보시기에 ‘인간에게 살기 좋았더라’라는 표현이다. 이처럼 성경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인간에게 무엇이 좋고 무엇이 나쁜지를 아시는 분이라는 것을 가르쳐 준다.

창조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지만 창조된 만물을 누리는 진정한 주인공은 인간이다. 태초부터 하나님은 ‘인간을 염두에 두고, 인간에게 애정과 사랑을 갖고’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 인간은 하나님께 특별한 존재였다.

세 번째 질문: 그럼 우리는 누구를 위해 일해야 하는가?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해 만드신 것을 인간의 손에 위탁하시며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는 일을 맡겨 주신다. 이것이 인간에게 주신 일의 기원이다. 처음부터 인간을 일하는 존재로 만드신 것이다. 신학자들은 이를 창조명령, 또는 문화명령이라고 명명했다. 인간을 하나님의 대리인과 파트너로 창조물을 다스리도록

위임해 주신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잘 관리하고 보호하고 유지하여 '생육하고 번성할 인류'를 위해 유용하게 사용하라는 명령이다. 함부로 오용하고 더럽히고 망가뜨리라는 말씀이 아니다. 여기에 인간의 온갖 일들이 다 포함되어 있다. 어업, 농업, 축산업, 광업, 제조업, 생산업, 식물 연구, 천체 연구, 지구 연구 등 무궁무진한 일과 직업들이 인간에게 주어졌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라고 하심으로 이미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을 염두에 두고 계셨다. 약 74억의 현재 인구뿐 아니라 120억 이상으로 늘어날 인구가 살기에 충분한 환경과 자원을 마련해 놓으셨다. 여기에도 인간에게 출산, 양육, 교육, 의료, 교역, 사업, 건축업, 금융업, 환경보호, 식량 개발, 질병 예방, 기술산업 발전, 문화 예술 등 무한한 일의 가능성을 열어 놓으셨다.

하나님께서 주신 자원들을 잘 관리하고 다스리면 모든 인구가 평화롭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풍부한 물질 자원들을 만들어주셨다. 그러나 인간의 지나친 욕심으로 몇 국가나 몇 사람이 너무 많은 것들을 차지하고 독식하고 때론 강탈하고 쌓아 놓음으로 자원과 식량과 부의 불균형이 시작된 것이다. 만약 당신이 자녀를 위해 장난감을 방안 가득 사주고 친구가 놀러 왔을 때에 사이 좋게 놀라고 했다고 가정하자. 그런데 방문을 열어보니 당신 자녀가 장난감을 다 차지하고 친구에게 손도 못 대게 하고 독점하여 놓고 있다고 하자. 함께 즐기라고 사준 장난감을 혼자 독차지 하고 지키느라 땀을 뻘뻘 흘리고 있는 자녀의 모습을 보면 당신은 매우 슬플 것이다. 어쩌면 이런 모습이 현재 인류가 하고 있는 일이 아닌가 생각하게 된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위해(For All of Us)' 모두가 함께 즐길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만드시고 모두의 행복과 안녕을 위해 사용하도록 위탁하셨는데 인간은 '나만을 위해(Only For Me)'를 부르짖게 된 것이다.

미국의 Next Jump라는 회사의 신념은 'Better Me + Better You = Better Us' (더 나은 나 + 더 나은 당신 = 더 나은 우리)라고 한다. 이러한 '사람 중심'의 경영모토는 하나님께서 원래 의도하신 창조이념과 맥락을 같이 한다.

창세기 1-3장은 하나님이 하신 일로 가득하다. 하나님은 흙으로 인간의 몸을 만드셨고 정원과 과수원을 만드셨고 인간에게 가축을 만들어주고 해양 동물과 조류와 온갖 식물들을 소개한다. 아담을 잠들게 하여 갈빗대 하나를 취하여 살로 대신 채우고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남자에게 여자를 소개한다. 인간에게 '가죽 옷'도 지



어 주신다. 하나님은 최초의 예술 공예가, 조경사, 마취의사, 외과 의사, 결혼 주선자, 결혼 주례자, 의상 디자이너였다. 하나님께서 먼저 일의 본을 보여 주셨다. 이것은 노동으로 가득 찬 성경에 나오는 육체의 일의 시작일 뿐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해 해 주셨다는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 모두가 잘 살도록 일하셨듯, 또한 우리를 위해 일하셨듯, 그 본을 따라 우리도 이 세상을 윤택하게 만들도록, 또한 우리 모두가 함께 번영하도록 일해야 한다. 이것이 ‘일은 하나님의 관심사다!(Work Matters to God!)’의 진정한 의미이며 일의 신학의 핵심이다.

종교개혁자 츠빙글리는 “이 우주 가운데 일을 하는 사람의 모습만큼 하나님의 모습을 닮은 것은 없다”라고 말했다.¹ 도로시 세이어즈는 “본래 사람은 살아가기 위해 일하는 것이 아니라, 일하기 위해 사는 것이다”라고까지 말했다.²

그러므로 인간은 죽을 때까지 일해야 한다. 일을 멈추는 그때 우리 모두는 비로소 일의 수고를 떠나 영원한 안식에 들어갈 것이다. 예수님께서서는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요 5:17)라고 하시며 인간과 달리 실제로 하나님은 안식일에도 우리를 위해 계속 일하고 계심을 가르쳐 주신다. 자신이 일하시기 때문에 인간을 일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드신 것이다. 우리가 일을 한다는 자체가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다는 증거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일할 때 실제로 행복하다. 일하자. 열심히 하자! 일을 통해 나 혼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 함께 유익과 행복을 누리자! 창조해 주신 자원들을 가지고 모두가 잘 살 수 있는 길을 끊임없이 모색하자. 일은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에게 부여해 주신 특권이요,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영광의 통로’다.

- 위의 글을 읽고 새롭게 깨달은 점이 있다면 나누어 보자.
- 현재 내가 하고 있는 일에서 다른 사람에게 유익과 행복을 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 작은 일이라도 좋다.

FWIA Voice

요약정리



하나님께서서는 창조를 통해 일의 본을 보여주셨고 그것이 일의 기원입니다. 일은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되었고 시작되었습니다.



창조된 만물은 인간의 유익을 위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다스리는 일에 하나님의 파트너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창조물에 유익과 발전을 가져와야 합니다. 특히 작은 일을 통해서라도 인류에 공헌을 해야 합니다.

ⁱ 벤패터슨. 「그리스도인과 일」 IVP 소책자시리즈 32 (Korea Inter Varsity Press, 2011), 6.

ⁱⁱ 팀 켈러. 「일과 영성」 (두란노, 2013), 47.

FWIA BUCKET

